

야콥 바서만의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에 나타난 메시아상

김희근 (한양대)

국문요약

바서만은 스스로를 독일인-유대인 작가의 모델로 보며 정체성을 동화에서 찾았고, 인본주의의 사고로써 독일성과 유대성의 종합을 낙관하던 식자층의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인종적 편견과 시민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확신이 흔들리자, 유대인 증오의 원인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세기말 유럽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은 선택적으로 수용했던 유대전통의 메시아이념을 재해석하여 세계의 몰락을 막고 진정한 상생의 방안을 위한 성찰의 산물이었다. 바서만은 서구의 몰락 원인으로 종교의 반 현세성과 자본주의의 물질주의를 꼽으며, 기존의 메시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메시아를 전면에 등장시켜 개인과 세계의 구원을 도모한다.

구원자 아가톤은 현세적 즐거움과 자유를 추구하는 새로운 종교를 선포한다. 그의 구원은 종파와 인종을 초월한 보편성과 세계주의를 지향하며, 분향에 대한 추상적 회구가 아닌 고향에서의 정착을 전제로 한다. 고향 예찬은 당시 유행했던 시온주의운동에 대한 바서만의 분명한 거부의 입장 표명이자 동시에 그가 의도하는 진정한 상생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었다.

핵심어: 바서만, 메시아상, 종말론적 비전, 유대인 문제, 갈등과 상생

I. 들어가는 말

『치른도르프의 유대인 Die Juden von Zimdorf』(1897)¹⁾은 야콥 바서만 Jakob Wassermann(1873-1934)의 유대인 문제 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서²⁾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 세계의 폭력과 부정의에 대한 경고 등

1) Jakob Wassermann(2016): Die Juden von Zimdorf. Berlin. 이하 Text로 축약하고 쪽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2)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바서만의 정체성과 유대인 문제 외에도

유대계 독일작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인식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초인 개념 도입, 현세성과 향토성의 지나친 강조, 사이비종교적 해석, 현실성을 결여한 유대성과 독일성의 종합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세계를 문제적 현실로 제시하고 반지성주의, 반물질주의, 허구적 자유주의 부정, 문명 대신 문화 강조 등을 통해 개혁적, 낙관적 미래상을 독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Vgl. Mayer 1949, 179; Stengel-Marchand 1985, 40; Oberhänsel-Widmer 2005, 181).

작품은 세계에 대한 바서만의 넓은 애정을 가리켜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실존상황을 묘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은 현대문학의 주요 주제인 소외와 고향상실의 문제를 다루었다. 바서만은 유대인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보다 명료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성과 독일성의 종합은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 이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 통찰을 얻고 병폐를 진단하며 윤리적 삶의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치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작품에 나타난 메시아 이미지는 세계에 대한 바서만의 이러한 이해와 자기반성 그리고 상생이라는 깨우침을 잘 알게 해준다. 작가는 세기말적 분위기에 빠져있는 당대 인간의 우수를 통해 사회의 부정적 근원을 밝히고 미래에 대한 긍정과 기대 속에 초인에 의한 세계의 보편적 구원을 열망한다.³⁾

역사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 사회 및 종교 비판, 니체사상 수용, 표현주의 기법, 발전소설 등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3) 메시아 주제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대부분 부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유대인 문제의 해결과 상생이념의 실천 측면에서 보편적 의미의 메시아 개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본 논문과 다른 시각, 즉 특정 종파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았다. 최근의 사례로 2015년에 생산된 보스코 L. Bosco의 논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논문은 독일 문화와 역사에 끼친 유대교의 영향과 “기독교의 유대교화 Judaisierung des Christentums”를 통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조화를 모색했던 19세기의 ‘유대교 학문 Wissenschaft des Judentums’ 그리고 형이상학적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 구원자로서의 유대인 예수의 모습을 다루었던 - 바서만이 뮌헨체류 시기에 교류했던 - 여류작가 안드레아스-살로메 Lou Andreas-Salomés의 논문 「유대인 예수 Jesus der Jude」(1896)의 분석을 통해 바서만의 주인공 아가톤과 예수의 관련성을 밝혀내고 있다. 보스코는 기독교를 유대교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당대의 경향에 상응하여 바서만이 작품 속 예수의 이미지를 그렸고, 이것을 토대로 구원자 아가

II. 상생을 위한 문학적 시도

바서만은 스스로를 독일인-유대인 작가의 모델로 보았다. 내면에서 독일성과 유대성은 충돌하지 않았다. 유대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상생도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이러한 입장(Vgl. Wassermann 1994, 126)은 당대 유대계 독일작가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포이히트방어 L. Feuchtwanger, 로트 J. Roth, 츠바이크 S. Zweig, 라스카-슐러 E. Lasker-Schüler, 뉘른린 A. Döblin 등은 유대전통을 인본주의 이념으로 이해하고 정체성을 동화에서 찾고 있었다. 본질적 의미에서의 유대전통은 더 이상 이해의 중심에 서있지 않으며 인본주의라는 보편 문화 속에서 지양된 것으로 보았다. 혈통에 따라 유대인이고, 독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독일인으로서 두 요소를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로 합치려 했다는 것이다 (Vgl. Lamm 1974, 37). 바서만 역시 동족의 고난에 공감하고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전통에만 안주하며 살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출생과 성장의 장소적 의미와 더불어 내면에 끼친 독일의 문화적, 언어적 영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적 간극이 제거된 보편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꿈이었다.

말투라든가, 매우 빠르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오래 전에 떠난 계토의 흔적을 보여주는 불신의 태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견해를 펼치는 것, 사소한 것에 쓸데 없이 골머리를 앓는다거나 궤변을 늘어놓으며 말싸움을 벌이고 (...) 위엄, 결속 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Wassermann 1994, 80).

위 인용문은 18세기 이래로 개종과 전통파기를 통합의 전제로 요구하면서도

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본다. 즉 예수의 특별함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하고, 예수의 죽음은 유대교의 종말이자 유대민족을 포함한 인류의 고통 그리고 현세에서의 낙원 건설이라는 비전의 상실이며, 아가톤은 이러한 비전을 재구성하고 예수의 뒤를 이어 세계를 구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Vgl. Bosco 2015, 111ff).

4) 바서만은 독일에서 태어난 것에 긍지를 느꼈다. “부드러운 선의 풍경이며 꽃으로 만발한 정원, 작은 호수, 버려진 성채와 텅굴로 휘감긴 폐허, 작은 성당, 소박한 사람들 (...)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관계 속에서 나의 것이기도 한 이곳”(Wassermann 1994, 13).

유대인을 기회주의자 또는 전통을 등진 변절자로 비난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성공적인 동화를 통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며 그들의 부와 지식을 경계하고 시기했던 서구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요약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서만의 고백이다. 그의 유대인에 대한 시각은 독일 보수계층이 견지했던 이러한 적의 이미지 그대로였다. 이것은 유대인 해방과정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던 시기에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동화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바서만에게 전통의 영향은 미비한 것이었다. 그는 종교로서의 유대교로부터 영향 받지 않았으며 문화적 전통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지식도 일천했다. 유대교는 실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독일인 또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20세기의 세속유대인, 소위 ‘넥타이를 맨 유대인 Krawattenjude’인 그에게 유대교는 소멸한 과거의 유산이었다. “유대인은 그저 이름만 그럴 뿐”(Wassermann 1994, 10), “내면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독일적이었다”(Wassermann 1994, 290). 서구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독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독일사회의 인종적 편견과 시민사회의 무관심, 특히 일차세계대전 이후 보다 가열된 양상은 바서만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었다. 그는 인본주의의 사고로써 추구하던 독일성과 유대성의 종합 모색이 반유대주의에 의해 무산될까 두려웠다 (Vgl. Horch 2007, 75). 독일인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던 그는 독일사회에 의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자서전 『독일인과 유대인으로서의 나의 길 Mein Weg als Deutscher und Jude』(1921)은 이런 불안한 내면을 반영한다. “시인과 사상가의 민족을 시인과 사상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헛된 것이었다 [...] 그들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유대인이야”(Wassermann 1994, 96). 작가로서, 인정을 못 받는 독일인으로서, 소속 없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세 겹의 고립에 처해 있었다.⁵⁾

5) 자서전 속 독일친구의 편견은 적극적인 동화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바서만은 무기력할 뿐이다. “우리와 너희는 정신적으로 서로 섞일 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네 [...] 서로 다른 혈통들이 성공적으로 섞인 듯 보이는 곳, 예컨대 펠릭스 멘델스존의 경우에서처럼 서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네”(Wassermann 1994, 74).

반유대주의의 경험은 증오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심리적 억압으로 그의 내면에 자리 잡는다. 서구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미신이나 자발적 현혹 (...) 성직자의 고집불통, 손해를 보거나 속임을 당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들의 증오 (...) 모방적 증오와 종교적 광분의 특성을 보인다”(Wassermann 1984, 39). 그러나 바서만은 증오의 원인을 서구사회의 탐욕과 호기심 그리고 비이성적 상황판단에서 짚어내면서도, 현실극복의 실제적인 기반은 유대교에서 찾는다. 그는 유대인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극단적인 주장, 즉 유대인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대인공동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다른 한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인본주의를 지키는 것, 이른바 유대인의 신적 과제와 사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제와 사명에 눈뜬 유대인을 도덕적으로 몰락한 서구유대인에 대비해서 동양유대인으로 부르며 예찬한다.

유대인은 동양인이다. 인종적 의미에서가 아닌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신화적 의미에서의 유대인이다. 이런 동양인으로서의 유대인은 세계의 변화를 일궈낼 창조적 인물이 될 수 있다(Wassermann 1928, 546).

유대전통은 문화에 대한 기억이고 전승요소일 뿐이지만, 현실을 극복할 실제적 요소들이 내재해있다는 것을 바서만은 인정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의 현존에 대한 절망적 인식과 현실과의 긴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전통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미래의 전망을 확보한다.⁶⁾ 내적 상흔은 예술적 의지를 통해서만 표출될 수 있었던 것(Vgl. Raddatz 2005, 55)으로서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은 독일사회의 거부와 몰이해에 대한 반응이자 환멸적 현실로부터의 해방, 즉 동양유대인이자 작가인 바서만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해법 모색의 산물이었다.

6) 유대전통에 대한 바서만의 이러한 선택적 수용은 그의 문학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예컨대 뒤에 언급할 ‘영원한 유대인 Der ewige Jude’과 유대민족의 신적 과제와 세계를 위한 사명에 대한 관심은 후기 문학까지 지속되었다(Vgl. Och 2007).

III. 세계의 몰락과 유대인

작품은 1개의 서곡과 1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소설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서곡은 소설의 중심인물 아가톤 가이어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1666년 바이에른 서북부 프랑켄 지방의 소도시 뤼르트에 역사 속 실제인물로 알려진 사바타이 제비의 사신 차하리아스 나르가 나타나 제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를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갈 것을 선동한다. 종말의 날을 앞둔 유대인들은 극도로 흥분한다. 한편 유대인 마이어 나탄과 텔젤라의 딸 라헬은 기독교인 대학생 토마스 페터 훔멜의 아이를 임신하고 곤경에 처한 나머지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녀도 임신을 했고 태어날 아이는 장차 메시아 제비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유대인들은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르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본향을 향한 그들의 행렬은 훗날 치른도르프로 불릴 지역의 숲 한 가운데에서 뉘른베르크 민병대에 의해 저지된다. 사바타이 제비가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소문도 전해진다. 혼란 속에 라헬은 딸이 아닌 사내아이를 출산한다. 마이어 나탄은 미쳐버리고 텔젤라는 가족을 이끌고 뤼르트로 되돌아온다. 서곡은 분명한 결말 없이 성급하게 마무리된다. 어리석은 종교적 열정이 빌미가 되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885년 대홍수로 뤼르트와 치른도르프는 물에 잠기고, 유대인 엘칸 가이어와 반유대주의자 쥐리히 슈페틀링이 각각 탄 두 척의 배가 물 위에서 만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쥐리히는 고의적으로 배를 충돌시키고 가이어의 17살 난 아들 아가톤이 물속에 빠진다. 아가톤은 복수를 결심한다. 다음 날 아침 쥐리히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소설은 살해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아가톤이 쥐리히에 의해 감금되었지만 도망을 쳤고 구드슈틱커와 친분을 맺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어질 뿐이다. 아가톤은 부자인 유대인 친척 집에 머문다. 잔치가 열린 가운데 기괴한 소리에 이끌린 그는 사촌 자네테가 강요에 의한 결혼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어 그는 기독교 윤리에 부적합한 과제물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한다. 화학교사 에리히 보예젠은 그런 그를 동정한다. 그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네테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아가톤은 유대인 고아들의 지도자가 되고 구시대의 파괴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선동하는 인

물이 된다. 소박하고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던 소년 아가톤이 반항아,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 나아가 선동가, 메시아적 존재가 되기까지, 소설은 아가톤의 발전과정을 빠른 속도로 전개한다. 사바타이 제비를 다룬 옛 종교서적을 읽은 후 아가톤은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는 경외의 대상이 된다. 번개와 천둥 속에 교회가 불타오르고, 민중을 상대로 종말과 새시대 출현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구원자로서의 아가톤의 면모는 절정에 이른다. 이제 그는 뷔르트와 치른도르프를 벗어나 보다 큰 지역으로 행보를 넓혀 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사로잡힌 왕의 탈출을 계획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가톤의 활동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모니카와 함께 치른도르프에 정착하려 한다.

몰락은 바서만의 세계 사유에 있어 중추적인 개념이다. 그의 관심은 세계몰락의 원인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에 잠재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현대성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혁명적인 희망으로 바꾸려는 이러한 탐구의 시각이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에 반영된다. 17세기 유대인의 삶을 다룬 서곡은 바서만 당대, 즉 세기전환기의 무력한 데카당스에 함몰되었고 현실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심리장애로 고통 받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메타퍼로 읽을 수 있다(Vgl. Martini 1990, 348).

나는 당신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 당신을 부를 때면 숲은 침묵을 지킨 채 나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 바다는 넓고 깊으며, 하늘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들이 웃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선한 이는 부패했고, 그릇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 아, 어디로 가야할 지? 하늘은 그저 내 안에 있을 뿐. 내 영혼을 위한 곳은 어디에?(Text, 30).

유대인은 이런 세계의 현대인을 상징한다. 종말론적 세계관은 정체성 혼란과 연결되고 그들의 성격과 행동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신의 구원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위로와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 제비를 좇으려는 차아리아스 나르의 결심은 깊은 절망을 동반하고 있다. 제비를 통해 삶의 실질을 발견하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현실은 불투명하다. 신의 현존과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인물인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승된 종교적 교리

도 사바타이 제비를 둘러싼 메시아 운동도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작가는 영원한 유대인 아하수베루스의 특성을 지닌 이 인물을 통해 유대민족의 모습만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서만은 그에게 보편적 특성을 부여했다. 그의 운명과 방랑은 신의 구원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푸르트 유대인들 역시 그러하다. 그들은 메시아를 좇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그리고 성서 속 예언에 대한 믿음을 통해 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적 황홀경과 광신적 상태에 몸을 맡겨 보지만,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 그들의 집에선 “고통과 신음소리만 들려온다. 어느 곳에도 본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거주할 곳 또한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Text, 29).

몰락은 서곡보다 소설에서 더욱 분명하게 형상화된다. 소설 초반부에 묘사되는 홍수는 세계의 몰락상황을 강렬하게 이미지화하고 있다. 문명화된 사회의 결과물들인 전답과 다리, 집들을 집어삼키는 홍수는 구시대의 청산과 새시대의 희구를 의미한다. 단단한 기반을 잃고 물 위에서 부유하는 배 위에 탄 인물들은 어두운 심리상태의 세기말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 아울러 소설은 상인, 은행가, 예술가, 농부, 여관집 주인, 교사, 학자, 과부, 창녀 등의 인물들과 카니발, 무도회, 사창가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19세기 독일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주인공 아가톤은 도덕적 가치를 상실하고 허무주의적 삶 속에서 떠도는 사회의 실체를 직시한다. “나는 우리가 문화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신속하게 파멸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Text, 142). 그가 본 사회는 “매우 타락하고, 몰락했으며, 부패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Text, 183).

바서만이 말하는 몰락은 무엇보다도 종교에서 기인한다. 신비주의와 나약함, 감정의 통제, 금욕주의적 사랑의 이상화 등(Vgl. Text, 121)이 그것이다. 데카당에 빠진 유대인 니버딩과 교사 보예젠의 부인은 종교의 이러한 부정적 특성들을 체현하는 인물들이다. 기독교의 유심론에 깊이 물든 두 인물은 현세적 삶을 혐오한다. 그들은 이성과의 육체적 사랑을 거부하며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고통”(Text, 121)이라 여긴다. 부인과의 불행한 관계를 비판하는 보예젠은 인간 삶은 물론 서구의 정신이 기독교의 비극적 반쾌락주의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지적한다.

인간의 정신은 수천 년에 걸쳐 간질병 환자에 의해 치유 받아야만 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셰익스피어와 괴테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과 같은 거대한 분수에 의해 땅이 마르는 것을 막지 못했더라면 우린 이미 오래 전에 몰락하고 말았을 것이다(Text, 122).

여기서 종교비판은 특정 종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유대인에 대해 불평하는 독일인 구드슈티커의 비방 역시 타 종파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벌레이고 뱀이며 오물이네. 병들어 버린 우리의 문화 전체가 유대교라 해도 난 부정하지 않을 생각이네”(Text, 84). 기독교 문화의 몰락을 유대교 탓으로 돌리는 편견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변종이라는 것이다. 유대인 니버딩과 기독교인 보예젠의 대화는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보예젠은 기독교가 내세우는 삶의 윤리를 비판한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동일한 내용과 형태의 광신주의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종교비판의 핵심은 바로 현세에 대한 거리와 인간욕망의 억압이다.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고귀한 삶의 과정을 쾌락의 행위로 바꾼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것인가? (...)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이웃사랑과 같은 비천한 개념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인이 비극적인 것에 히스테리를 부린다면? 당신, 현대적인 유대인 양반, 신비주의 그리고 눈 속에 서있도록 만들고 애인을 영적으로만 갈망하는 그리고 자기극복이라는 파렴치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행에 대한 열망을 가진 당신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Text, 140).

반쾌락주의와 더불어 도덕적 타락과 물질주의는 서구사회를 황폐화시킨 또 다른 요소이다. 이러한 유형을 대표하는 인물은 기독교인 쥐리히 슈페를링이다. 놀랍게도 바서만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 서구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고리대금업자 샤킬록의 이미지를 그에게서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파를 막론하고 도덕적 타락과 물질주의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내면을 경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하

리아스 나르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모든 이교도는 몰살될 것이라는 반인륜적인 미래비전을 유포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유대인의 저주와 악행을 부추긴다. 인간의 도덕적 몰락은 종파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 극복되어야만 할 요소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바서만은 감각적 욕망의 해소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주의로 인해 인간의 내면이 황폐화되는 기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던 이념으로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형이상학적 세계의 존재와 존재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유물론적 사고에 빠져든 현대인은 사색과 반성을 위한 힘을 상실한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주체적 판단과 결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사회와의 괴리로 이어진다. 서곡에서 유대인들은 채색되지 않은 창문 그리고 곱팡이 냄새가 나는 삭막하고 냉기가 도는 유대회당 안에 모여 있다. 기도실에서 조차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광신적인 종교의 열정을 드러낸다.

차하리야스 나르는 어두운 길을 따라 유대회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 평화로운 분위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모두 자신만을 위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때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퍼붓는 등의 알 수 없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그곳은 마치 음모를 꾀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지하실처럼 보였는데, 고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도실이라고 하지만, 삶의 즐거움이라든가 신을 찬미하는 즐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초가 타오르고 있어서 외부에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무엇인가에 잠겨드는, 엄격한 신에게 수상쩍은 기도를 드리는 후덥지근한 협곡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Text, 9).

유대회당은 더 이상 신앙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과 행복만이 최대의 관심사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신앙공동체적 분위기를 떠올릴 수가 없다. 유대회당에서 공부를 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나르는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그들의 멍한 눈은 개인화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통 속에 죄의 목록을 담은 아침기도문을 암송하는 어린이들에게 종교는 위안과 부정현실에 휘둘리지 않을 절제심을 제공하지 못한다(Text, 9). 허무주의를 부르는 전근대적 문명에 대한 바서만의 비판은 새로운

사회를 이끌 강력한 구원자의 출현을 시사한다. 보편적 진리로 간주되던 것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가치로써 낡은 세계를 소멸시키며, 인종과 종파를 초월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낼 아가톤이 비로소 등장한다.

IV. 새로운 유형의 메시아, 아가톤

차하리아스 나르의 모습은 예전부터 전해져 온 영원한 유대인, 아하스베루스의 이미지에 상응하는 것이다. 쫓기듯 분주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목표는 기독교적 신화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유대교적 의미에서는 디아스포라적 상황의 종식이며 예루살렘 귀환을 의미한다. 소설에서 아하스베루스 주제는 쥐리히 슈페를링에게 에어드만이 저주를 퍼붓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희생자의 역할은 바뀌고 있다.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에게 저주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원한 유대인의 불행한 운명을 기독교인이 영원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영원한 유대인의 구원은 초인에 의한 것이다. 아가톤이다. 그는 아하스베루스, 즉 영원한 유대인에 대비되는, 자신과 타인을 구하는 긍정적인 모습의 유대인으로 등장한다. 바서만은 의도적으로 반아하스베루스의 유형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오 쥐리히 슈페를링 (...)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을 원망할겁니다. 원망, 원망할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유대인은 이제 구원되고, 당신, 쥐리히 슈페를링은 영원한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 당신은 영원한 기독교인이 될 것이고 저주받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원수사랑 때문에 흘린 피를 마셔야 할 저주말(Text, 107).

아가톤이 생각하는 새시대 건설의 전제는 구시대와 문화가치의 근간이었던 종교의 파괴다. “저것을 태워라, 교회를 불태워라!”(Text, 174).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없고, (...) 그 때문에 체념하지 않고, 저 위에 군림하는 자와 청산관계에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을 가져야만 합니다”(Text, 179). 여기에서 종교는 기독교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대교를 지칭한다. 작가는 금욕적, 반현세적 성향을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탁월하게 그려낸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어지는 종교 전통은 낡은 가치와 규범을 고수하고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했고, 그 결과 현실은 타협거부와 사회갈등으로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도시들이 파괴되고, 허물어져야 하며, 사람들은 자신을 되찾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가톤이 이러한 꿈에 자신 전부를 투입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며 다가왔다. 그것은 적의를 품은 가련한 자들과 함께 그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뒤에, 마치 허깨비 같이, 작지만 완강하고, 선동적이지만 능숙한 태도의 유대인이 서있었다(Text, 174).

바서만은 종교의 부정성에 의해 왜곡된 현실을 아가톤의 시각으로 보여준다. 독자는 서구사회와 유대인 모두를 비판하는 아가톤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현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소수인 유대인의 현실은 유대인 스스로 초래한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만든 대다수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구시대적 퇴폐성과 병적인 것이 저변에 숨어 있음을 알아내는 것이다. 먼저, 바서만은 유대인에 대한 서구사회의 시각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유대인들은 여전히 타자의 자의성에 방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소설 속 19세기 유대인들의 모습은 서곡에 등장하는 17세기의 선조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유대인의 부정적 상황은 다수의 유대인 등장인물들을 통해 증명된다.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요소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바서만의 이러한 인식은 쥐리히가 고의적으로 일으킨 배의 충돌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사고로 아가톤은 물에 빠지지만 유대인들은 당황함과 의견의 불일치 그리고 삶을 위한 기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를 구하지 못한다. 아가톤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나무 위로 올라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나는 더 이상 배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Text, 56). 동족의 비굴함 때문이다. 아무런 저항 없이 적의 자의적 행동을 방임하고, 무기력과 현실 순응적 태도 속에 지배

권력의 폭력에 저항할 수 없고, 해방을 위한 투쟁에 참여해야 할 필연성을 도출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 유대인에 대한 혐오의 표현인 것이다. 이어 아가톤은 유대인의 억압된 내면이 외부로 향할 경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지를 간파한다. 밤낮으로 낡아빠진 기도서를 펼치는 인물인 아가톤의 할아버지 예노흐 카르카우, 신을 맹신하는 그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혹독하게 대하고 부를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현실과 괴리된 전통에 자아를 몰입함으로써 조성된 거짓궁지와 환상은 현실의 좌절에 대한 거짓대안을 제공하고 주위세계와의 부조화를 인식할 지적 능력을 박탈한다. 물론 종교에 덜 얽매어 있는 인물들도 있다. 아가톤의 부모는 신을 경배하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소박한 유대인들이지만, 끊임없이 기독교인의 폭력에 휘둘리고, 고난한 삶을 숙명으로 여기는 존재다. 이외에도 서곡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결코 모범적인 유대인으로 간주할 수 없는 19세기의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가 소설에 추가된다. 서구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동화유대인, 특히 유대인 상류층에 속하는 로제나우 남매들이 그 사례다. 로제나우 자매가 경박하고 가벼운 것에 탐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시도르 로제나우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오명으로 생각한다. 그에게 양복은 유대인 신분을 감추는 위장도구이다. 아가톤은 동화유대인들의 회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였다. 흔한 모양의 턱수염을 기르고 매끄럽게 머리에 기름칠을 한 유대인 상인,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 언론인 (...) 하위직 공무원임에도 고위직 흉내를 내는 근엄한 표정의 유대인, 예의를 차리고 가식적 태도를 취하는 의사와 변호사. 그들 모두의 얼굴에서 지성이 엿보였다. 하지만 찰나의 지성일 뿐이다. 사물의 숨겨진 가치를 모르는 그런 지성 말이다 (...) 얼굴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천박한 삶을 살아오면서 남긴 그런 것들을. 고귀함은 일시적 향락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사라졌다 (...) 사업가들의 몸은 비대했다. 그들은 호주머니 안에서 짤랑거리는 돈을 느끼고 있었다 (...) 거짓행동으로 폭력을 감추어 두고 발톱을 보여줄 그 시간을 고대하는 노예처럼(Text, 78).

아가톤은 폭로라도 하려는 듯 자유주의의 물결에 편승한 동화유대인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사회 전역에 두루 포진되어 있는 그들은 천박한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다. 그들은 서구사회의 반유대주의적 전형, 즉 돈만 밝히는 유대인, 기회주의자 등으로 폄하되던 이른바 ‘유대인 파베뉴 Parvenü’다. 그들은 선조들이 믿던 신 대신에 돈의 신, 지식의 신을 신봉한다. 하지만 전통적 신을 방기한 그들의 내면은 비어있다. 아가톤은 영혼의 안식을 제공할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유대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작가는 이미 서곡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암시한 바 있다. “유대인은 문화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허상이라고 말한다 [...]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역사가, 고통이 아니면 성공이?”(Text, 53). 황금만능주의, 자존감 결여, 자기혐오, 노예근성 등 동화유대인의 탈 인격적 특성에 바서만은 사물화된 지성을 추가한다. 유대인은 해방과 성공이라는 허상 그리고 동화와 상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주체적 판단 능력과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

바서만이 생각하는 현대유대교, 현대유대인의 과제는 세계를 역사적 허무주의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다. 서구문화의 반현세성과 자본주의의 물질적 사고로 인해 개인은 공동체와의 괴리 속에 내적 부자유를 경험하고 폐쇄적 이기주의의 황폐함에 빠져버렸다. 바서만이 주장하는 현대유대인의 과제는 “자의식을 되찾고 위대한 전통을 되살리는 문제”이며, “유럽의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아시아의 과거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Wassermann 1984, 26)이다. 초월성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구원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명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대인의 부정적 삶은 보편적인 실존상황으로 인지되고, 유대인 혈통의 메시아가 보편적 구원자 개념으로 확대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의 소산이었다.

언젠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천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가장 지독한 고통을 체험하고 귀족적 자의식을 갖춘 자긍심이 넘치는 사나이일 것이다. 그는 유대인의 복수를 가장 잘 수행해줄 인물이다. 온 인류가 그를 필요로 하고 그가 베풀어준 것에 부끄럼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Text, 27).

아가톤 가이어, 그리스풍의 이름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전통적 의미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선과 현세적 삶, 관능적 즐거움 향유 등의 그리스 문화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메시아로 그는

등장한다. “그는 새롭고 자유로우며 신을 모르고 사는 종족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Text, 174). 아가톤은 현실을 거부하거나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지 않는다. 이념을 위해 죽음을 무릅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대답한다. “죽을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살 겁니다”(Text, 180). 작가는 아가톤에게 기독교적 메시아의 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아가톤은 슈페를링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죽어가는 이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추종자들은 그의 말을 성혈처럼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묘사되는 것과 유사하게 아가톤은 천상의 빛으로 휘감긴 인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얼굴을 지닌 존재로도 형상화된다(Vgl. Text, 209). 그러나 그것보다는 종파를 떠난 보편적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더 강조되는데, 이것을 위해 바서만은 그의 종교성을 희석시키고 그의 출생배경마저 불분명하게 만든다. 아가톤은 유대인 라헬과 독일인 대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후예로, 다시 독일인 아가톤 구드슈티커의 아들로, 이어 "고귀한 종의 딸"(Text, 231)로 소개된다. 말하자면 아가톤은 게르만적인 것과 유대적인 것 중 가장 우수한 유전적 요인들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독일인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소수를 위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이다.

서곡에 등장하는 가짜 메시아 사바타이 제비를 대비적으로 설정한 것도 아가톤의 이러한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아가톤의 또 다른 특별함은 무엇인가? 작가는 그에게 니체의 초인적 특성, 즉 과거를 부정하고, 기존 가치에 순응하지 않으며, 고통이 따르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등의 특성들을 부여한다. 쥐리히 슈페를링 살해사건은 초인으로서의 아가톤의 면모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소설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지만 독자는 아가톤이 범인임을 알 수 있다. 쥐리히의 유대인 박해에 극도로 분노하는 그가 압제자 살해를 굴욕적인 삶의 조건들을 바꾸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역시 범죄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아가톤의 행위는 희생자에 의한 도덕적 억압으로부터의 자기해방 실현으로 미화되고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선과 악의 범주를 벗어난다. 오히려 아가톤은 살인행위를 통해 자의식으로 충만한 개인으로 발전한다. 개별성의 획득을 통해, 사회적, 윤리적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인본주의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 아가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개인의 존엄성에 눈 뜬 개인이라면 사람을 살해해도 좋을 권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가톤의 행동은 자칫 폭력과 파괴의 예찬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19세기 말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허무주의 그리고 신의 죽음 선포와 더불어 종래의 규범과 질서로부터의 해방과 개인의 자유를 주장했던 이념의 반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니체는 서구 문화의 가치와 기독교적 근거들을 공격하면서 이성과 도덕적 범주화로 인해 문화와 인간 삶의 생명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서구문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해 삶의 근원이 되는 원초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Vgl. 백승영 2005). 당대 많은 작가들이 니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바서만 역시 문화적, 정치적 구원을 노래했던 철학가의 미래비전에 도취되었던 작가임을 알 수 있다(Vgl. Aschheim 1996). 철학적 사고에 기대어 부정적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 비전을 찾으려는 젊은 바서만의 의지 표현이었던 것이다.

바서만의 메시아 개념은 자연친화 그리고 고향예찬의 특성들을 보인다. 아가톤은 자연에서 내적 평화를 얻고 종파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적인 것에 침잠할 수 있으며 사물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자연에서 자유와 진정한 삶을 위한 힘을 얻는 아가톤은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에 예속된 도시의 현대인들보다 우위에 서있다. 그에게 자연은 고향의 자연을 의미한다. 가짜 메시아 제비와 추종자들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인 본향을 찾아 떠난 것과 다르게 아가톤은 고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온 나라, 온 민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은 고향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천천히 나라와 인종들 위로 흘러 지나간다. 비록 시간은 도시를 파괴하고 숲을 뚫으며 새로 생긴 도시들과 숲들을 무심하게 쳐다보지만, 고향의 땅에 대해 서만님은 결코 그 사랑스러움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습과 저런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친 손길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고향은 아들을 만드는 것이다. 고향은 그를 제 소유물로 주장하고 그의 삶 행로에 함께할 지참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내 소리를 통해 네가 생겨났느니라(Text, 3).

인간을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닌 기후, 풍경, 언어 등의 자연, 즉 고향의 땅이다.

고향이 제공하는 안정과 치유의 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유대인이 낯선 존재에서 정착자로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것은 작품집필 당시 유럽 유대인 사회에 유행했던 시온주의운동에 대해 바서만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독일인-유대인의 진정한 상생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예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유대인 문제의 해결은 항상 주위세계와의 관련 속에 있었고, 주위세계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서 파악될 때 실현될 것이었다. 주위세계의 문화와 가치를 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현실의 모순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전제가 되었던 셈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동족을 자랑스럽고 귀족적 의식의 소유자로 설명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독일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프랑켄 지방의 풍경에 대한 애정과 고향예찬은 그가 생각하는 방안 중 하나였던 것이다. 니체의 초월이념에 대한 바서만의 문학적 해석이 추상성에 매몰되지 않은 것 역시 변화하는 현실 속에 대두되는 현대 유대인의 현존과 주위세계와의 관계라는 문제를 세계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피해 의식과 희생 그리고 타자의 배제가 아닌 포용과 인정이며, 고통스런 수난의식으로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변화추구의 낙관적 태도를 의미한다.

V. 나가는 말

바서만은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에서 상생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원자 아가톤의 유대교를 비롯한 종교전반에 대한 비판은 종교부정 또는 무신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미래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미래를 모색하고 전통 속에서 선형적 요소들을 취해 인류애와 보편성, 세계주의로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메시아 이미지 속에는 종교비판과 더불어 종파와 인종에서 해방된 선과 현세성 추구의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방랑자에서 정착자로 전환되는 데 기반이 되는 고향예찬 등을 통해 세계를 위해, 모든 현세적인 것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혁명가, 구원자에 대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소설의 현실공간은 부정적 현실과 유토피아, 그릇된 구원과 진정한 구원,

천박하고 복잡한 도시와 고상하고 소박한 시골, 질병과 건강함,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직관, 물질주의와 형이상학 등의 다분히 흑백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서, 직선적이며 단선적인 다소 순진한 이러한 시각으로 세계의 본질을 포착하고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가의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색채가 제거된 메시아 이미지 역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그려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바서만에게 유대교의 메시아사상은 인본주의와 정의실현의 이념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을 부정하고 반교권주의를 부르짖는 혁명가이자 선동가인 아가톤의 구원이념이 제시하는 비전은 불분명하고, 실제로 소설 속에서 인류와 전 세계의 구원보다는 목가적 분위기 속 이상향을 그리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상화의 문제, 나아가 전통에 대한 일천한 이해에 따른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말미 사과나무 아래 가족과 함께 이상향을 그리는 아가톤의 모습은 막연한 미래비전의 선취와 더불어 전통에 대한 바서만의 불충분한 이해와 신뢰를 반증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Wassermann, Jakob(2016): Die Juden von Zirndorf. Berlin.

Wassermann, Jakob(1928): Lebensdienst. Gesammelte Studien, Erfahrungen und Reden aus drei Jahrzehnten. Leipzig/Zürich.

Wassermann, Jakob(1984): Deutscher und Jude. Reden und Schriften hrsg.v. Dierk Redenwald. Heidelberg.

Wassermann, Jakob(1994): Mein Weg als Deutscher und Jude. München.

2차 문헌

백승영(2005):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책세상.

Aschheim, Steven E.(1996): Nietzsche und die Deutschen. Karriere eines Kults. Stuttgart.

Bosco, Lorella(2015): Jesus in Jakob Wassermanns Roman Die Juden von Zirndorf. In:

PaRDeS. Zeitschrift der Vereinigung für jüdische Studien e.V. Potsdam. 21. 105-121.

Hinterhäuser, Hans(1962): Die Christusgestalt im Roman des Fin de siecle. In: Archiv für das Studium der neueren Sprachen und Literaturen. Bd. 198. 1-21.

Horch, Hans Otto(2007): Deutschtum und Judentum. Eine unmögliche Synthese? Jakob Wassermann im Kontext der deutsch-jüdischen Literaturgeschichte. In: Dirk Niefänger(Hg.). Jakob Wassermann. Deutscher-Jude-Literat. Göttingen. 69-89.

Lamm, Hans(1974): Jakob Wassermann - Deutscher und Jude. In: Ein Beitrag der Stadt Fürth zu seinem 100. Geburtstag. Fürth. 30-39.

Martini, Fritz(1990): Jakob Wassermanns fränkische Romane. In: ders. Vom Sturm und Drang zur Gegenwart. Autorenporträts und Interpretationen. Ausgewählte Aufsätze (1965-1988). Frankfurt am Main. 343-355.

Mayer, Hans(1949): Der Fall Jakob Wassermann. In: ders. Literatur der Übergangszeit. Wiesbaden. 177-181.

Oberhänsel-Widmer, Gabrieller(2005): Jakob Wassermann. Die Juden von Zirndorf. In: Kirche und Israel 20. 181-188.

Och, Gunnar(2007): Ahasver oder das andere Ich. Eine mythische Chiffre im Werk Jakob Wassermanns. In: Dirk Niefänger(Hg.). Jakob Wassermann. Deutscher-Jude-Literat. Göttingen. 109-125.

Pazi, Margarita(1989): Jakob Wassermann. In: Deutsche Dichter. Bd. 7. Stuttgart. 40-46.

Plöger, Nicole(2007): Ästhet-Ankläger-Verkünder. Jakob Wassermanns literarische Anfänge 1890-1900. Würzburg. 271-332.

Raddatz, Fritz J.(2005): Der Riss im Dasein wiederentdeckt: Jakob Wassermanns großes Buch Mein Weg als Deutscher und Jude. Die Zeit(Mittwoch, 4. Mai 2005).

Stengel-Marchand, Birgit(1985): Das tragische Paradox der Assimilation. Der Fall Wassermann. In: Der Deutschunterricht 37. 38-41.

Stimilli, Davide(1999): Findlinge. Kafka und Jakob Wassermann. In: Deutsche Vierteljahre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73.3. 478-501.

Zusammenfassung

Das Messiasbild in Jakob Wassermanns Roman *Die Juden von Zirndorf*

Kim, Heegeun (Hanyang Univ.)

Wassermann sah sich selbst als Vorbild eines deutsch-jüdischen Schriftstellers und fand seine Identität in der Assimilation. Er war ein typisch assimilierter, gebildeter Jude im zwanzigsten Jahrhundert, der die Synthese von Deutschtum und Judentum im humanistischen Denken zu verwirklichen glaubte. Als die Hoffnung auf die Zukunft jedoch an den Rassenvorurteilen und der Gleichgültigkeit der Zivilgesellschaft scheiterte, begann er, die Probleme der europäischen Gesellschaft und die Ursache des antisemitischen Hasses zu analysieren.

Die Juden von Zirndorf war ein Spiegelbild für die Verwirklichung eines Weges, die Welt zu gewinnen, indem er den Fall der Welt zu verhindern, und die jüdische Tradition der messianischen Ideologie neu zu interpretieren versuchte. Wassermann betrachtete die radikale Sichtweise von Religion gegen die Weltlichkeit und den Materialismus des Kapitalismus als die Ursache des Zusammenbruchs des Westens und führte eine neue Art vom Messiasbild ein, das sich von den existierenden Messiasbildern unterscheidet.

Der Erretter Agathon verkündet eine neue Religion, die weltliche Freude und völlige Freiheit sucht. Sein Heil richtet sich auf die Universalität und den Kosmopolitismus, der über Religionen und Rassen hinausgeht, und setzt die Siedlung in einer eigener Heimat voraus. Die grenzenlose Liebe und die Treue zu seiner Heimat waren die Ausdrucksformen von Wassermanns scheinbarer Ablehnung der zionistischen Bewegung und praktischer Maßnahmen zur Realisierung des Wunschbildes einer deutsch-jüdischen Symbiose.

야콥 바서만의 『치른도르프의 유대인』에 나타난 메시아상 155

Schlüsselwörter : Jakob Wassermann, Messiasbild, Endzeitvisionen, Judenfrage,
Konflikt und Symbiose.

필자 E-mail : pius2108@hanyang.ac.kr

논문투고일 : 2017. 10. 25 / 심사완료일 : 2017. 11. 24 / 게재확정일 : 2017. 12. 15

